

“전남의 성장 동력은 바다... 해양산업 육성, 낙후의 틀 깨겠다”

전남지사 유력 후보 인터뷰 - 이낙연 국회의원

전남지사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북엇국을 먹으면서 매콤한 토마토를 한 숟갈 넣어 국물부터 맛을 봤다. 영락없는 전라도 입맛이었다. 바쁜 일정 탓에 이른 아침밥을 겸한 인터뷰 내내, 이 의원은 “전라도의 풍부한 바다에 미래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전남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책임 있는 혁신을 통해 전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리더십이 가장 절실하다. 혁신은 결국 리더십의 문제다. 부드럽지만 강력한 혁신으로 확실한 변화를 가져올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전남은 풍부한 해양 자원과 넓은 농토, 따뜻한 기후,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다. 전남의 이런 잠재력을 활용해 식량산업과 해양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물의약품 및 실버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조선, 제철, 석유화학 등 기존산업을 고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현재 전남 도정 가운데 절되고 있는 것과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잘 갖춰진 것은 친환경 농업이다. 박준영 지사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확신 덕분에 전남은 친환경 농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2004년 4000여 호였던 친환경 농가가 2012년 6만6000여 호로 늘었다. 전국 친환경 농가 14만3000호의 46.1%에 해당하는 숫자다. 전국 농가 중 친환경 농가의 비중이 13.8%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전남의 친환경 농업 육성은 괄목할 만하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의 외적 성장만큼이나 이제는 내실화가 필요하다. 친환경은 신뢰의 문제다. 전남도의 친환경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질이 중요하다. “올해 F1 한국대회가 연기되면서 차기 지사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F1 지속 개최에 대한 생각은?”

▲F1 대회가 전남의 과제가 된 것은 안타깝다. 도민들은 F1 대회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F1 성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F1은 지난 4년 동안 1910억 원의 누적적

자를 냈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전남에 짐이 됐다. 대회가 없는 올해 해 동안 F1 적자개선 가능성과 도민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파악해 대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박 지사께서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적절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

“박준영 지사는 ‘친환경 농업’을 강조했다. 전남발전을 위한 자신의 비전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다’다. 전남은 섬(전국의 66%), 해안선(46%), 갯벌(42%), 바다(37%) 등이 풍부하다. 전남을 생명의 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전남지사가 되면

F1대회 원점서 재검토

전남을 생명의 땅으로

동·서부권 갈등 꼭 치유

가지고 있다. 생명의 원천인 식량의 공급기지는 물론이고, 생명을 쉬게 하고 치유하며 재충전하는 힐링의 천국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바다에 미래가 있다. 수산물 생산 뿐 아니라 해조류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완도 해조류 박람회도 이 때문에 중요하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사후활용도 바다를 활용한 전남의 성장 동력이다.

또 해양 플랜트 산업도 전남이 잘 사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나?”

▲새정치에 대한 국민의 갈증을 풀어야 한다. 당명에까지 ‘새정치’가 들어가 마당에 여전히 새정치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을 국민에게서 들으면 안 된다. 6·4 지방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

또 전남 유권자들도 새정치민주연합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남은 한국 정치의 중요한 고비마다 좋은 길을 이끌어 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대선 패배로 도민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한국정치를 이끌어 온 전남의 자부심을 이제 경제·문화·생활의 혁신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전남지사 선거가 ‘경선이 곧 당선’

인 구도가 됐다.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가 경기 규칙을 이레라 저레라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새 정치를 지향하는 통합 신당의 경선이라면 첫째, 새정치당계 신선한 감동을 국민에게 드릴 만한 방식이어야 하고 둘째, 통합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전남지사 공천 과정에 전략공천이 이뤄진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경선 승리를 확인한다. 경선 이후에는 본선을 준비한다는 계획뿐이다.

■공천 방법은

통합의 정신 구현해야

지지도 낮은 후보

전략공천은 안된다

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남에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전남의 자부심을 회복시켜야 한다.

전략공천은 기존 후보로 승산이 없을 때 당 지도부가 선택하는 카드다. 지금 전남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지도가 낮은 후보를 전략 공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의원직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1월 20일 도지사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의정활동과 선거운동 겸하게 어려운 단계가 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을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에는 도지사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함께했다.

“해의 출장 중인 강 의장이 귀국하면 직접 찾아가 사직서 처리를 다시 한번 부탁하겠다.”

“전남 서부권 출신 지사 후보들이 많이 경선 과정에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출신지역으로 경쟁하면 회복하



주요 공약

버스 준공영제 실시·동부권에 제2청사 두고 근무

이낙연 의원의 주요 공약은 버스(준)공영제 등 공공정책과 전남 동부권 지원이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의 특성에 맞는 공공정책과 도청의 무안 이전으로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동부권을 챙기겠다는 게 이 의원 공약의 핵심 축이다.

이 의원은 “전남의 대중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의 주민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인 ‘100원 택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준)공영제가 실시되면 65세 이상 노인과 학생,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들은 버스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신안의 사례를 참고해 각 시군이 지역 교통여건을 반영해 도입할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버스가 없는 마을 주민들이 콜택시를 불러 100원만 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으로 태워다 주는 방식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자차단체 입장에서선 택시노선 버스를 운영하는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 이미 충남의 일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다.

전남 동부권을 위한 공약도 준비하고 있다. 동부권에 ‘실질적 제2청사’를 두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동부청사에서 근무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동부권에 도입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여수공항 지원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동부권을 위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해 ‘수목원법 개정안’과 여수엑스포 사후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이 중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고 소개했다.

걸어온 길

기자출신...DJ 권유로 입문 16~19대 4선 국회의원

1952년 영광군 법성면에서 태어났다. 이낙연의 부모는 10남매를 낳았으나 3남매를 잃고 7남매를 길렀다. 그는 원래 3남이었으나 두 형의 죽음으로 장남이 돼 대학까지 제때에 마칠 수 있었다. 가난했지만 열렬한 야당 당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광주북중과 광주일고에 진학할 수 있었고, 이후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21년 동안 동아일보에서 정치부기자, 동경특파원, 논설위원 국제부장 등을 지냈다.

정치부기자 시절에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 그 인연으로 1989년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았으나 계속 사양했고, 결국 2000년 16대 국회의원에 첫 당선돼 내리 4선을 했다.

이후 그는 민주당 대변인, 전남도 당위원장 사무총장,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 당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5차례나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간결하고 절제된 논평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식품위원장 시절에는 국내외 정세가 풍부한 격조 높은 메시지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신뢰를 얻었다. 그의 대변인 논평을 모은 책 ‘이낙연의 낮은 목소리’와 농식품위원장 시절의 경험을 담은 책 ‘농업은 죽지 않는다’는 책을 쓰기도 했다.

국회에서 그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NGO모니터단으로부터 10회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2009년 국회 농식품위원장 시절에는 ‘최우수위원장’상을 받았다. 미술교사 출신 부인 김숙희 씨와 의과대 레지던트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기 힘든 상처를 남긴다. 진정한 마음으로 도민을 보고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관한 여러 말씀을 들으며 ‘걸어온 길’ ‘가진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이낙연의 경선 전략이다. 전남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도민들의 힘을 모으는 경선이 되기를 바란다.

최근 만난 전남지역 한 노인에게 “노인 복지를 늘리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 아들이, 젊은 사람들이 세금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더라. 저의 경선전략은 ‘진정성’이다. 경선은 전남의 비전을 가지고 경쟁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 때문에 경선 전략도 철저하게 이에 맞춰 준비될 것이다.

“전남지사 선거가 동·서부권 간 지역 대결로 치달고 있다. 이를 극복할 전략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주민들의 상실감이 적지 않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부권에 실질적인 ‘제2도청’을 두고 그곳에서 지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이상 근무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인사와 사업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전남의 어느 권역이든 소외감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겠다. 정부부처와 인사 담담을 동부권 출신으로 하겠다. 또 문화예술 시설을 비롯한 공공기관을 동부권에 집중하겠다.

비단, 동부권뿐 아니라 권역별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맞춤형 공약을 내놓겠다. 도민들이 각 분야마다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을 해소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왕인과 떠나는 역사여행, 문화로 즐기는 氣찬영암!

www.wangin.org Korea Be Inspired

2014 영암왕인문화축제

Yeongam Wangin Culture Festival 2014

4.4(금) ~ 4.7(월) / 전라남도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개막행사 '왕인학등에 불을 밝히다' : 4.4(금) 저녁 7시 /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

왕인축제행사

- 왕인전래문물 놀이마당 (천자문, 종이, 도기)
- 박사마을 놀이마당
- 심대포 놀이마당
- 외국인 왕인문화탐험 'Hello 왕인'

氣체행행사

- 활승산 氣체험 (단전호흡, 명상, 기체조, 기수련)
- 사상제일관
- 활승산 氣한땀 트레킹

영암문화행사

- 영암민속놀이 여섯마당
- 남주골 어울림한마당
- 영암민속예술단 공연
- 영암어린이재능전시회

영암큰장터

- 활찬들 소풍물
- 영암도기 · 관평상품 판매장
- 활찬들 시장
- 활찬 음식거리
- 활찬 농 · 특산물장터
- 다문화학습점

영암군행토축제추진위원회 061) 470-2346~50 영암왕인문화축제 홈페이지 : www.wangin.org

영암군청 문화관광실 061) 470-2255 영암군 홈페이지 : www.yeongam.go.kr

내비게이션 길 안내 : '왕인박사유적지' 또는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왕인로 440번지(동구림리 산 18번지)'

▶ 주최 : 영암군

▶ 주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전라남도 Jeolla Namdo,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KATA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지역진흥재단 Korea Local Promotion Foundation